

# 북조선실록

북한 주요 신문 | 분야별 잡지 | 외국 자료 | 기타 자료

(1차)

001~010

(2차)

001~020

(3차)

021~030

(4차)

031~040

(5차

041~043, 098~104

(6차)

105~114

크라운판 | 각권 평균 760쪽 | 각권 160,000원 한정판 제1권~제43권, 제98권~제114권 년표와 사료

001~043 098~114

Korea Data Project

경남대 · 북한대학원대 코리아 데이터 프로젝트

### 북조선실록의 간행 목적

- 북한 이해의 기초로 사용할 사료를 수집·정리·가 공·활용하는 작업을 통해서 의미 있고 중요하며 나 아가 근본적인 아카이브 구축을 국내·외 협업을 통 해 이뤄내고자 한다.
- 1차로 편년별 『북조선실록』 사료집 간행을 통해 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한다.

## 북조선실록 간행의 추진 배경

#### 북한 연구에 필요한 1차 사료의 체계적 정리 필요

- 북한당국이 일찍부터 문서를 통제·왜곡해 왔기 때 문에 찾는 것 자체에 큰 어려움과 노력이 필요하다.
- 북한사 관련 모든 박사논문들의 공통 고백: '너무 없어서' 혹은 '너무 많아서' 이용에 한계가 있다.

#### 「로동신문」 등을 결호 없이 소장한 기관이 없다 괜찮은 '사전', '북조선 연표', 사진아카이브가 없다

- 북한에서 이와 같은 작업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현재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어렵다.
- 학계 연구 수준의 양적·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예: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간행으로 한국현대사 연구 활성화의 계기 마련)

## 북조선실록의 작업 내용 및 편찬 방향

- 『북조선실록』은 연표와 1차 사료, 사진, 해설 등을 함께 묶어서 편찬·간행한다.
- 기록의 역사적 가치 평정에서 가급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엮은이가 단독으로 선별한다.
- 1차 작업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94년 7월 8일까지 연·월·일의 편년체 사료집 형식을 취한다.
  - ※ 편찬 체제와 기술 내용 예시 참조
- 권별 분량은 760쪽 내외를 1권으로 묶는다.
   (향후 작업량은 1,000권 예상)
- 주요 사건과 당시 상황 이해에 필요한 1차 자료를 선별하고, 반드시 전거를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 엮 은이의 각주와 해설을 붙인다.
- 2차 작업은 '검색시스템' 구축이다.
- 3차 작업은 '북조선 DB' 구축이다.
   (이미지가 아닌 원문의 Full-Text 입력)

#### 편찬 체제와 기술 내용 예시

#### 1945년 8월 20일

■ 김일성은 소련 브야츠크 훈련기지에서 항일유격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자파 중심의 당과 정권기관 및 군대 조 직에 관한 포부를 밝혔다."

김일성은 건당, 건국, 건군 방침 의 의의와 내용 및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문헌에 따르면 김일성 항일유격부대는 경쟁관계에 있던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당 창건과 신 국가 건설운동을 처음부터 무시하거나 외면하였고,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를 '혁명전통'으로 내세우며 자신들이 주도하는 군대를 창설하고자 하였다.

####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동무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반파쑈민주력량이 승리한 결과(쏘련군대의 결정적 역할에 의하여)<sup>2)</sup> 일본제국주의 침략군대는 격멸되였으며 우리 인민은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 속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락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투쟁에서 영용하게 싸운 조선 인민의 수십만우수한 아들딸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마침내 근 반세기에 걸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며 조선 인민 앞에서는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조선 건설의 휘황한 앞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이하생략/실제내용은 Full-Text입니다)

조선노동당 출판사, 1978, 『인민정권 건설에 대하여』 제1권, 51~69쪽.

<sup>1)</sup> 이 날의 김일성 연설에 대하여 편집자가 찾을 수 있었던 최초의 기록은 다 음과 같다. "해방 된 조국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창건하는 것은 하루 도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업이다. …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시련 속에서 당 창건의 조직 사상적 준비를 튼튼히 갖추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15성상 의 준엄한 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 육성된 공산주의 골간부대가 있 으며 공산주의 대렬의 사상, 의지, 행동상 확고한 통일단결이 있다. 우리는 조국에 개선하여 이 튼튼한 밑천에 기초하여 하루빨리 조선공산당을 창 건해야 한다. …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 속에서 육성된 공산주의핵 심을 골간으로 국내 각지에서 분산 활동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그루 빠들을 결속하여 먼저 당을 창건해야 한다. 물론 국내 공산주의자들 속에 는 종파 악습에 물젖은 자들도 있을 것이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적 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다 떼여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을 먼저 믿고 결속하여 당을 창건하고 실 지투쟁을 통하여 검열하고 개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침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복잡다단한 정치정 세 속에서도 당을 빨리 건설할수 있으며 또 빠른 시일 내에 당 대렬의 장 성과 순결성을 다 같이 보장하고 그 통일 단결을 강화할 수 있다."(림춘추, 「조선공산당 창건을 위한 그이의 위대한 구상』, 『노동신문』, 1970 10 28)

<sup>2)</sup> 이 부분 외에 『저작집』, 『전집』 내용이 동일하다.

#### ○○메워넣기

탁 정	A.	김	김	r)	러	믝	김	김	리	2	미	el	리	유	£	김	-\$-	참	4	강	김	긺	티	8)	상	81	리	박		-	
창〇	) 부	젂	0	선	0	-6	기	원	극	성	Ť	병		oğ.		병	Fo	세	ű.		*	성	점	성				윙	당신되	Z.	1
40	) 到	Ħ	0	제	0	업	王	-8-	旦	华	87	남	앵	Ť	4	21	희	r)	cg	仓	企	77	仓	택	권	ŧì	8	행	世界を見りませる	선	1
44	: 강	*	\$	워	김	-9-	리	김	리	유	김	毕	리	민	신	혂	÷	박	19	\$	計	出	毕		B)	김	*	십	五八日	為	1
종투	8	칟	0	0	남	봉	만	0]	平	8	-8-	0	丞	ed	s).	정	원	0	0	남	병	વ	专	평	정	0	히	0	野野湖水	0]	0
널 흰	1 1	5]	0	0	ti	桑	市	企	산	盘	£	0	세	성	E	권	og!	0	0	至	직	8	7	4	130	0	જ	0	~ Æ	les.	t
리왕	ナ	김	企	리	리	4	추	김	유	운	叫	러	질	리	dolo	박	2)	Z.	장	김	4	料	-1-	叫	리	김	문	な	本名 五 五 見 見 当 白	3	177
	질	0	0	0	0	Ť		연	0	0	0	8	ŧ	상	광	4	乜	원	4	걔	0	0	4	0	og	순	1	0	100	의	7
श C	황	0	0	0	0	[	0	권	0	0	0	今	뫈	થો	Ť	એ	干	숙	숙	ŧ	0	0	世	0	Ť	납	£	0		L	1
김송	- 리	성	리	£	정	함	리	박	김	리	림	김	리	是	정	리	박	÷	김	明	김	ş.	子	2)	z	김	H.L	집	1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3
中〇	) 식	주	병	明	운	0		상	원	석	150	8	0	두	શ	委	-봉-	긁	문	낙	계	21	재	0	8	9_	0	P		6.7	0
40	보) 보	식	4	관	ᄻ	0	£	亡	也	하	-9-	8]	0	겍	석	7]	4	¥.	牡	03	립	문	4	0	판	성	0	동	Property Story	명	K
선 리	12	vg	9	정	引	يد	문	8}-	리	귑	리	김	£	-9-	김	哥	미	2)	광	4	-8-	E	叫	世	리	4	전	긤	xi	25	7
00	) 동	두	¥		가	No	옥	બુ	普	9	7	삽	8	*	13.	0	*	저		0	진	0	진	7]	핀	uj	30	못	77		Y- W
00	-g-	은	램	백	÷	완	÷	今	맹	-2-	北	-8-	세	햩	予	0	李	8):	仓	0	ol	0	-Ţ-	31.	8.	到	7	일			

『로동신문』1948 9 1

박헌영 리 용 허 헌 장 권 허성택 리점순 김성규 김창준 강 순 박문순 함세덕 홍명희 김병제 윤 수 유영준 리 영 리병남 리주하 최성환 리극로 김원봉 김기도 리승엽 <u>리근우</u>리선재 <u>김백동</u> 김점권 조복례 <u>정주하</u> 탁창혁 조희영 <u>김단삼</u> 정진섭 리정열 홍면옥 박승극 리인동 박병직 홍남표 <u>리기석</u> 박원준 윤인영 염정권 신상동 리여성 리호제 <u>박찬혁</u> 김용호유영윤 리두산 김의순 리만규 우봉운 김남천 <u>원효순</u> 홍선우홍철희 강웅진 손두환 손종열 강윤원 문민운 김순남 리영준리규희 유석균 최한식 박춘언

#### 사진 캡션



동북항일연군 간부들(1943년 10월 5일 촬영) 앞줄 오른쪽 두번째부터 김일성, 周保中, 王一知, 張壽錢, 둘째줄 오른쪽부터 彭施魯, 최용건, 王效明, 王明貴, 馮仲云, 張光迪, 셋째줄 왼쪽부터 隨長淸, 김철우, 김광협, 강건, 서철, 楊淸海, 끝줄 왼쪽부터 김경석, 陶雨峰, 최용진, 김일, 안길

#### 1953년 정전협정 및 임시보충협정 전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련합 국군 총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 서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일방으로 하고 련합국군 총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조선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조선에서의 적대 행위와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조선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이하 생략 / 실제 내용은 Full-Text입니다) 조선인민군 1953. 7. 28. 부록 1~2.

T## 1:	) 1	95	현	7 2	28	얇	( 3	8	일)							_	ž	-		선		5	1		민		ō	:			_				刈	89	Æ	(学)	31	60	08
러고 호수하는 지역에 사망들이 다. 비무슨 지역 내의 어때만 다. 비무슨 지역 내의 어때만	사건이나 군사등지생을 통화원을	社 世間 日付品 古田的川 安姓の	明明明 五七 明子者 以明五年的	42	对待的 資外 泰州縣明 弘心 英州	보충 보다의 살림함에 보여에 나 전 위험되가 이를 굴절한다 착망	致劳 非平司 勢間 千司者 受外者	· 智学語 对及 (智学的 対及 明	인속 성숙의 상징에 이십 개명한 당시 등에려면 있는 듯은 병명의	正 江 好巷 監衛 蒼竹司 非思 盤	人、發發好學到 今何正及何 正	라 성시합 설계 보신성의 전염수 답역됩시	外 司令務問題司 智 有用性婦 非	明 昨日 司管縣 里有景会 司食時	日日 かか 小田田から の下市	에 따라 이를 함께서 보석된다	理, 受外等用型意 计可称 於司	學語 司號 明一點管 里野)	보내 보시한 본 경제인 및 한 경기는 이루랑 지내는 청부한 지	學時 河外 州一尺管 显珠) 語 对外螺 里司龍 時節 野蜂(盤	二、受外發明問刊 利用的 個外	時間 時付利 明教会 永明教全 気	我用外 明子恐 門明於 智智計	스보이 이내 준비간에 단계의 이	ガ の (CI) 何思 明明等 本国管	一· 단계의 문자 문제기술 와	군사분계선교	제 - 조	A ある たかた たか ある たか	日 おびの せつだ 郷州門 元七日	競賣 水明縣 恐惧 含管食 智利司	마음을 불당대 방대한 교통과 등 나온 현당소로 최신 화기이 시험	失風 群山 明整学管 牽 网络原花 餐幣	이번 입민군 위로 사랑한 및	서		사 정전	老人已平	# H H H	원군 사정권을	조선인민군
The Act of	사 해당 보급 및 장이를 위우셨 나:[] 지참 내에 그들의 열계 중	· · · · · · · · · · · · · · · · · · ·	司司司 有日 专公 小野野安心	성은 보험하는 전을 때문에 하기	工学行及工司 学問司 野生学会	ペル や おお 香香 東京記録会 工作)	经有效的 经外外 网络明 网络明	生司会 经移勤的 (各 智權 智慧	かな なれた 果 歩せ を歩い 五	五香香味 老 香料 明明 明代的	· · · · · · · · · · · · · · · · · · ·	全 五世紀 二十二 年間 計明 祖	子明 香食門 里花 养斑蜂 竹種	가 총 칙	7.3 9 7.7	4 × = 2	선 이렇지 무분에 있어지와 인사	也好 明平司 問明明明 食外 奏期	竹竹子 外工 外間安外 含者 竹竹	당시 당장 및 우리 사업은 보선	· · · · · · · · · · · · · · · · · · ·	門間 各門衛衛 新外部門 接合	你司外也 引發雲 周月野五七 司	전 위단회의 특정한 터가는 영보	九、竹件 時間 間 千川 八百月	少年 本司 新田 弘永 司司司及	그 비무장지대		2 Pales of Lates.	可 司令 五司 五型明月前 五型	明 年間本 子替合品 お上を 会	型十計町 R I 用分外 早月分	明 对明明 智明 無理外 子替会	등이 완성한 경지를 보장하는 정	-TI		이 관한 협정	老人是平雪 口是 可为了可方是 乙食 豆		정권을 길방	최고
는 문 정원형성이 도려를 맞는 다시다고 있습니다. 본 정원형성이 도려를 맞는다.	사제 및 본 전쟁 현장 제   O한	경하였으며 도 제대 살맞 사면차	한수합 생산을 가선 비꾸장 부대 진) 현의 기산 내내 제기 확성증	利用無利 於安的明月 外接上 (內	이를 제거받아 생생이 (七:1) 시	· 神世 川 八八明 中中 上 二	で 付 へ な か ( ) ( ) ( ) ( ) ( ) ( ) ( ) ( ) ( ) (	하 음식도 보상을 (11년) 음숙생	金曜 司 寶老 等風器 用点好的	취실되게 이를 보고왔다. 그 나 마시 시민들이 되고지 않다 정신	함께 이러한 취임성을 생겨한 군	相關學士之 司司縣 有關學的 報	明明 本司 法禁止 阿山中 可用人 斯 黑化 三司 安全 谷司 水流 的		9 7 5 7 2 5	1	9	全 年本日之 司管司 項目書 司司	李正安 馬爾部門 朝野時 明上 司	日本日本中日 日本中日本 日	明日 明本 公司接近 火火火井 於明 明月 本 刊書の 明今者 河田	明代转的例子 砂塘町 明尽力 对外处 电影雷 野頭野子 使失败	外 可分分 河頭 计相对的 的复数心 詞 使用的 的复数 河鄉 医乳	明外 明白 不好司 原於 問題 學	竹田本 全母 智田 明朝期以早日	日本 日本 日本 日 本日日 七日日 日本日 日本日 日本日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本 日	野河外 かの 質質な 含塩素 近年工 質 水液町 見か 見雅 見雅 二甲二	· 一、 そ 月の かのる できる	일이수 무기를 통해되지 못만하	かり 日本 日本日本 の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と	에비한 주기한 돌아 점한 위험되었다 전략이 되었다.	이 중수는 언제나 된 ( 00	가 난 이스 얼맞이 되자된 설립 기가 사이를 경쟁한	받는 것인 또는 사업이 입점수는 이루를 지내내 몫이면 많은 이가	및 구제 사업은 집합하기 위하여 당 사업등이 적임된다 인사 명절	명명 및 수명 사업은 영합하는	•	Ho 01 151 40 111		일방으로하고 전합국군	The Party Maria
배의 보착 및 조선조모두터의 의 속의 이의한 출사 인형도 조선에 속의 이의한 출사 인형도 조선에	마난 해방수의 중시 단점의 주제 다시 하나 시작으로 연락으로 있다.	型 京町 安型製以外の 止祖人	사 인원소 수이 소지스 뜻밖다	현 (고)전, OOO) 및 이상의 준 미에서 조선 정의교부터 상반 소	二世(一) 对赞明明 景於 智可問題的 也 对上 保护的 表別 內	(一) 也可 及我 对此的情况 祖	可止可 里 五型色里 年时 明明堂	日本の日本日本日本日本 日本日 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少以一日本 白班 白班名 五門 各	对 茶學學 內門計之 時長 學明	智川口 琴門 寒态 过程川 医进程形态 司否 司不能的 人名英格兰	항상하였던 인원의 조선배의 위 상상하였던 인원의 조선배의 위	五年 司 五世 智明明明 经刊本	日本日本 11日日 安か日本	公安外 经现金分分 上公司会	그 보선 정치로 부터 승인하	公司各件人有年發 門及 明然以恭	のなる はない なない 対して	의 시에라의 있어서 동계하며 돌아 보 사업적의 군사 동계하며 돌아 보	五五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四十	李月公司 公司 李中 在食 田田谷	日 二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五	一八条 香母 二二五米 八〇号)	是 河水类) 等增品 (分割工)七层,要等 三世區 國水學 医骨 二世區	は 11日本 (大田本) 本書本( 11日本 (大田本) 大田本(	五八學 香湯一二四是 四〇墨)	照明性 姿势并 州等司 號而 五花七 次司司 吃 整明正外 管門及司	당이 주제하고 있던 설등속 당하	비루 입안이 집면하고 있더라도	月時中間間留中司即也 香料也 果	· · · · · · · · · · · · · · · · · · ·	는 지난을 하지하기 위하여 모두 됐기하지 않는 때에는 살때만	지난이 생기산 송로난 이숙없이	및 중앙이 온데한 이 보기를 받기 있다.	风色 医外间管 見計 食等 見 計明付款 轉 明祖凡及事时 正教師	100 made 12000 to 100 a		조선 급			
하여 주소 교통성이 확위한지 본 및 및소한 계생은 참가 되었는 경기하기 위	발생하였다고 보고점 지점 작년 본부와 본 정점점점 위한 시청이	河北州外 左 全型子 古年 引見耳	河北 州門及管 里的 一分留者 营	수요 교통선수 경우되어 (정부)	수업이 강아이전지 및 그의 소	다 보고 및 설계의 가능한 방교 지하기 인주를 접명한 비해 등록	가 하기와 상이 지정한 그들의	明題問外 沒用 含固香 內食 九九	人、 살사 경선 위원리와 그러	祖会个 弘心 智明 み又な 全日野	學 사明新公司 含用於門 舍也 愛	위점되자 이끌 경쟁하나 적에 받 알지지 방법과 기반은 군사 정전	母 歌の 公川 外替会 明日即会	母子 经食件工 正 并食件可 今日	하다 수가 너무 찾은 것이 보고	公司 竹井的 ひのふむ 河南 山外	內口官者 三司 沙木 子門部門 題	설명이 보려는 뜻별단주 병명단 되어 관약된 경수에는 본 생선	登旦外 野沙司 恐州縣軍 銀甲也	사이에 있는 선원을 위함이 처럼 당 지속 모장된다	古香的食用 引作的名 水路司 門	おおり 人をない	사망 무기 및 찬약의 보체를 잘	化原注分析 使用性 化自动电池	安 拉外 引起到之 八川 香田香	· 一	***************************************	明 是五数件 司 是五金明月 五月	の 日本 子公司 からの 少小 な	整 跨香銀河 前節件 行同節 務理	土丘 香州香令 監印 正周月 专司	· 大田から 対会計の大学 五世	对 學情外時 平月 間 務時也 五	보 (T) 보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中平川 開 發中也 於也 四合外	한 경험 기관에 자리 보수 승교	· 本社 司引力 香香外野 平川 製	· 1 付付月 長数会 分析的可 月食 むり	全世界明明 學門科 以外祖 學問	五分引 今日今 古年 司見司也	机链环 受力转让 机银矿 食功能
전 형성을 비주병 수시고 원호하나 중 두지 않으나	可含原用 外替会	全衛 非學術 河州	マガ 引発対心 等 ののあ) 早元曜 型	一九本をオーニ	で 本型 中野町 中	日日日 日日 八万の今天 おおむ	******* * *** *** **** **** **** **** ****	그림, 상사 정전 위험되기 전	一、四州中世前	* " 54 24 24 24 (1)	병책을 업고하는 것이나 불받은	體別的 刀斧 外刀 等可 與 管 科明教 使用的用 工 哲學的 管 科	東野 野學 化學學 國大學者 四十	祖会 与金数个 知中	色 工 題立場 非非 於聖 見里 也	其色 五縣 管管門 将且 整个盤件	48 4584 ST 498 48	변지 위한지 참 (II) 발문 경험 상	各 問題者者 春 八明清明 司令	知 、 司 、 司 、 司 、 司 、 司 、 司 、 司 、 司 、 司 、	母 经租款 用水平增黄环 茶香 丝型新州 工 香州 五 (元) 增長 五	(10) 智司 五官 子香八旦 子	日本 日本 本本 本をおか な		一、 구 성	나, 군사 정전 이	의무장 지점하 상점받의 순자 목	月月 日月日 日子 子外 日中心 月 日月 日子 子外 日中田 日子	禁令 原母 同時全 会全時時	지내와 살때까지 못가 못제하며 이내한 지수 못가 더만은 너무게	일저 지수 산사 의학에 제속되어 산사 목계하여 있는 거에 속의	一門、果 智慧智力亦 母節引	含有土泉 的全斜白 時歸 哈哈特 等	对正等 显示整体 的现在 智外權	五年 外門外 心可食 有時前 祖	外 次的 使智能 全管会 全胚科量	如 資外 替然行發期外 內替數件	내 자자 단계의 시장단 이명장송 전 이루장 지역에서 하기속 지역	<ul> <li>* 동사 정면하였지 본부 본</li> <li>* 동사 정면하였지 본부 본</li> </ul>	也 水光明 五十八日 等引 間 卷	· 安小 정点問題期 製 合司
<ul> <li>그 등 설립 행정을 위통할 때 없다 한 물기의 환경을 통한 사건들이 당한 병점을 생대하다.</li> <li>그 다 수대로 했으라다.</li> <li>그 다 수대로 했으라다.</li> <li>그 다 수대로 했으라다.</li> <li>그 다 수대로 했으라다.</li> </ul>	明 有聖 也然 有限期間 五里 合称 前期期	日本の 人間形の名式	並立即 前門 对等色	在 各 智雅 智智 科智	SHOW MANA	244	N 4 8 8	ų.	-	A STATE OF	香料 半命 能整心 等時刊 好管	상 엄덕하나 등등 참지 소프리	장수는 번탈수준 등 사람들이 이 등록 보이는 얼마 때 등이	本 会全 竹田 門籍党 外間題の	其當 堂長之五 子母節司 五 香司	· () · · · · · · · · · · · · · · · · · ·	河外 公正記令 放中	のけ 止死時 今也 堂林 智祖 引	작시 소프를 누어 그 얼마를 받	二二十二十一十一十一十一十五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	明 明外門 保仓 安谷縣 生明会	시장 중국한 및 당장으로 당석하기술 인정을 입당하나 기독은 그	明明治明 明五縣 州州 襲 祖於			위원회	学学の 見合称者 半分の中	日本 かみ 日毎月 田 二 大学の	The state of the state of	经 医骨棒 重型管 医全体放布 经股票股票 医骨髓管 建門 香河	金属的 经外租租款外 有中 我们	明 整势 邻醇橙食物 艾雷 司令制 医个特化 说意 艾索斯的 用	题 智观智智的 尤用 含万金 權所 群 工 旦勢 止命學所 Ƴ 可包的	현요한 쓰기와 방법을 개받으로 위하여 있는 살리네다게 원리의	방당 사업관점은 각각 그들의 기 기	泰 安 有在在在 医有种性 医自然的 医自	一七、 七 智可智可用 亦學亦	지하면 있는 조심지역 및 이 장	비문을 지역하 소역할의 출사 등의 현재 등록 당시 연락은 기계 현재 등록 당시 연락은 기계 연락은	一八、 是 等有数者心 司司 舍	아이란 중심이 상에도 하지 못한
나라 주보 위험으로 입작성수 있 나라 지도 위험으로 입작성수 있	西 報報会 外書館令 はい 同時社	三八、全世帯 ひや 付着回行 七 世 司等者 かちゃ まい	於衛 明明者 香田寺 古年 明年期	司 食情将 全部 好恐 該勢司 河	五四 付部外 安世世 大田田 今	五 女母歌个 はガロセ 川川州 を	者野町 三分付題の 町間 司書	學問 外有期令 銀行 明月 引發	的好 告 保護期間 植野河心 引題	等外部門 はる 今外公 吹むる は	的野公 李明司 智司公 三 司等	시가 이를 납적합니	아저런한 승규수 수 시작 및 시	の の の な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周見空外母別的 苦香点点 內門社	日間か 川工 外目疾染 全者 引型 日本 の (1) ので 日本	(注) 可引 五當 金原五五 平型	the contract of	化二十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二	the street of the	東京の 司をおけ	原於 管 科智用外 五个野也 恭禮	かか 神戸風水谷 司会部門 水 の	上下 各學 前門 人名日 衛格	好學 外型企品時間 香茶漬件	周 副司 內各司 學學者 明報 別	주의한 중앙 수 있다 주의한 중앙 수 있다	발한의 수에러전이라게 이십시 살는 공회를 갖수 있다 당 어느	지하는 이가 보는 나는 나는 나이	三一、金本 母也 非無其心 明報	三、**	司 今世 有報司公司 世間片 雲外	하는 사건을 보자한 변화을 가진	방하였다고 보고에 본 설립 행정 이루잡 지역나 당장 의우에서 왕	各各管 特別 人名安 外有許明	그는 문자 경우 위점의 모수	수에 冰량 약 중경에 집이는 것 같아 하려 하루 막 지내 및 환상 하	· · · · · · · · · · · · · · · · · · ·	는 부에 도 , 문사 발전하일의 문주 등 때문을 보려면 살아들아 등 시 점점 보석수 살았다. 행기업 교통 대통령나 최근 수업 최대를 보험한 보험 보험하게 된 이 이번 등 등 수가 하는 것 됩니다. 하는 기가 기가 위한한	告 かり 止れれ かせ を見 間 利	大大 五月 安全 直接车 五月 李
호텔에 따로 보고 얼마나 된 이미의 고급하여 보고 마음이 되었다. 이미의 모든	衛衛門 可以及 以前 智者 無力 持有 見り 見り 見り 見 の 日本の 二十五十二十五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十二	明告刊 能照馬 即有利 显者整 今	母 ひきいむ 時間 町曜川 等管路 一月壁 止流時 川焼む 止流所 川焼む 止流風 野町	於 學院 間 衛行司 明日河 香香料	人學者 计管理 中國 计可许 可發 一起 网络喉科 色 智性 發揮 明二	前替 外进的 發型的禁止工 足工	一門發 日本權 香香縣 田安井 門	以下の 日本日本 中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日本	歌 人工会 本計門 果 智見 明智	· · · · · · · · · · · · · · · · · · ·	其中司 等世間 有別條件	Will but to have	おりは 引き 以 ののの はみを 金丁	中華教育 四月 日報 寶 海外	中 五一見管 日午 製 四二八号明 一	四一、 全世代 安年 有效其明 !	· 지정의 권한	SE 1 20	ेशका नमान्य समान्य व	of checky	1	한 기이더라 단다 한 기이더라 단다	學 阿利尔 经营用点层 明 李重縣	明明的 人名 此七 含其明 明歌	二九、金本 ひを 引をおる 日	소기 타기설수 생활을 각 화일을	好 告 明發期刊 別學 明香八味之	经免债 对各州 光正 司事会司 祭	司 內芥川 學問題 平間企 其於社	照得 管件 智見 引龍打如 老		明州 見三むむ	바타하게 시장되었다고 화정한	보고 신청이 어찌만 위한 사건이 보고 있었다.	위한 사건은 식대 상황 사명됐습	神野 ユ 二七、子母 有有 引引列 生命 外上 野門縣 田崎市 今月五 ユ し、川川 管理等 川野 水魚や 日本 日 中川 管理 報告 引管 外形的 質問報生 五、川川 管理等 川野 水魚や	二元、安外 智也 并因用外 甚	작기와 기술을 정한 센탄을 가게 기억에 가게 지점에 가게 조현함	이 가입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 이 원칙은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 사람들은 그 것이 되었다. 그 사람들은 그는 것이 되었다. 그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 그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 그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 그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 그 것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되었다면	等 引動或的 对二 包含的 合作	会 外項股个銀小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나는 인치 차량 비행기 등 성 지장 또 그 입부 선택시에 사 지장 또 그 입부 선택시에 사	사건에 매함 조사용 보안된?	公司 司上 報管 全司引引的 五	사 정점 위험의 보신 등 위험	사건숙 전 목 중앙이 많이 내	新公 点面之 可用片 二 整个	合有 前題科 五型網 各幹的 路	烈叶子四年 司舍司聖 止馬	かか なな のをおれ かか 今	부 부산에 수계시킨다 그 수	受關者 的勢 內勢 五正型 草瓣	당입국 시합 소프를 구제시킨 기	经企品 香港 经有 明天以外	· 公正告 で申べての 切むす	祖 祖母 不同二年日 田内田	가 중약 인접 지원산 사병원	ਚ	이어	이 가입을 다 있는 것 같아. 이 가입을 다입을 수 있는 것 이 가입을 다입을 다 되었다.	사는 상지에 입한 및 비중술 상당 수 있다	○ 公元 衛子 日本 本本 あらり	五明 好好 司管 管管操作 管理	內令 安全 答明 內內 日曜時	中國財權 國本縣 明然の 於	道非 全理个 州州 等司 等司日	* 4 4 4 ( ) 4 4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題的 李管五里 可可能 10個点 ·	시한 수 있다 그 두 조병	司五學媒 蜂節 刘也 司 (11)	理查 項目計判 非月科計可 日 在一月 八州	智转心 分外司 平潜 早時時間 遊 止直的	時中也 随時安全 李 外間次列	內間數 全日今日外 日五 五五	五月 竹竹管 明五 作時於外 五	古の人人門 を持む 外分の人 ル	그 에게 중인국 시한 소리	会 內明 그에 보고하여 또 그	智者 司發 止死心 五司 全國	型型 引發期外 香香 合作 明日 在香 整合的 成五月 全化 从	の 対の (10) 本本の (10) 本本の の 対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の	看到食 發無數也 具的体

정전협정 및 임시보충협정 전문 북측 판본 최초 공개("북조선실록, 99권 468~488쪽)

#### 모택동 연설

#### 1953년 11월 23일

오늘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자 간의 경제와 문화 협력 협정 체결을 경축한다. 또한 성명을 발표 했다. 오늘 저녁 이 협정과 성명을 방송할 것이다. 이것은 대사건 이다

우리 양국 인민은 전쟁기간 동안 서로 단결했었다. 전쟁 전에도 물론 그랬었지만 전쟁으로 통해 양국 인민의 단결은 더욱 공고해졌다.

이번 협정은 양국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마 어떤 이들은 이번 협정에 나타난 원조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쏘련과 중 국 등 각 인민민주국가가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선 쏘련의 지원이 없다면 전투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중국과 중국 인민은 물론 제국주의 침략을 원하지 않는 전 세계 인민의 도움 이 없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중국 인민은 지원군을 파견했 으며 각종 물자를 보내주어, 조선 인민을 도왔다.

그러나 이런 지원을 일방적인 것으로 여기고, 조선 인민은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조선 인민은 매우 용감하다. 그들은 고생을 감내할 수 있으며, 용 감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가난과 고달픔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진 이런 수많은 면모들은 오히려 우리가 따라갈 수 없 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배워야 한다.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의 중국침략에 반대하는 투쟁 속에서 조선 인민은 우리를 도와주었다. 조선 인민의 용감한 투쟁이 없었다면 중국은 안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적군이 압록강변까지 치고 올라왔을 때 그들을 격퇴시키지 못했다면 중국의 건설도 보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 조선 인민이 함께 전투를 치렀고 함께 승리를 쟁취한 것은 서로 도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쏘련과 중국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 세계 민주진영의 인민 들이 도왔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점은 마땅히 인민들 사이 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수천, 수백만 조선 인민은 3년간의 전투를 용감히 치르며 막대한 대가를 치렀고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쳤다. 이 승리는 국제적인 승리이며, 전 세계 인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 우리 양국 간 체결한 경제와 문화 협력 협정을 공포한다. 이 협력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선 인민의 경제회복을 도울 것이다. 조선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은 바꾸어 말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조선이 첫 번째 방어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방인 두 번째 방어선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 는 거두었다는 것은 즉, (이하생략/ 실제 내용은 Full-Text입니다)

중국 외교부 당안관 203-0003-01, 1~3쪽.

『북조선실록』 제106권 562~564쪽에 실린 중국 정부 주석 모택동의 북조선 정부 대표 단을 위한 초대연 연설이다. 모택동의 연설은 당시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후 中共中央文 獻研究室, 『建國以來毛澤東文庫』 등에도 실리지 않았다.

#### 김원봉 논설

#### 1950년 2월 17일

■ 국가검열상 김원봉이 각 기업소들의 엄격한 검열사업 실시 를 촉구하였다.

# 정확한 검열사업으로 생산계획 실행과 제품의 높은 질을 보장하자, 국가검열상 김원봉

1949~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은 잔악한 일제가 남기고 간 조국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 활을 향상시키는 유일한 계획경제이며 동시에 미제의 침략과 리승만 매국역도들을 타도하고 조국의 통일 독립을 쟁취할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는 담보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산업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 수상의 총결 연설은 2개년 인민경제계획 완수를 위한 총 지침인 것이다. 북반부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김일성 수상의 총결 연설을 높이 받들고 산업부문 인민경제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하기 위하여 광범한 증산경쟁운동에 총궐기하였다.

(이하 생략 / 실제 내용은 Full-Text입니다) 로동신문 1950. 2. 17.

मान्यस्था प्रसादा के स्वार्थ के स्वर्ध के स्व	मिना प्राप्त के स्वर्ण के	1 9 5 0년 2월 1 7일	[20]	豆
1 1 5 1 4 1 8 2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1 5 1 4 1 8 2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에 가는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고 수 없다고 같습 수 없을 보고 있다. 것을 보고	一大四九一一大四九一一大四九一一大四九一一大四九一一大四九一一大四九一一大四九	
1 1 5 1 4 1 8 2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1 5 1 4 1 8 2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8	1 가다 구당 이 제작한 수 시의의 보다 구석인주의 관단회자인 기업자의	마는 기업 이 기업	· 높은 사진
	से के किया किया के कि	기계 등 속하는 경기 시간에 확여한 생각으로 보는 것이 되었다. 기계 등 하는 것이 되었다. 그 지수는 것이 되었다. 그 지수 있는 지수는 지수는 지수는 지수는 지수는 지수는 지수는 지수는 지수는 지수	4424444	보로

약산 김원봉이 평양에서 논설을 처음 발표한 것은 1950년 2월 17일이다. 국가검열상 김원봉은 '정확한 검열사업으로 생산계획 실행과 제품의 높은 질을 보장하자라 제목으로 '로동신문」에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의 논설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조국 통일·독립의 담보인 인민경제계획의 발전을 위해 노동능률 향상, 생산원가 저하. 원자재와 경비 절약 및 간부 양성 등에서의 강력한 검열사업 실시의 촉구였다. 김원봉은 이 논설에서 김일성과 쓰딸린의 말을 인용하여 자기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당시 북조선 정간물에 기고한 '김원봉'은 서로 다른 4명이 있었던 점이다. 따라서 이름만보지 말고 내용을 통해 변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근로자」 1954년 10호에 실린 '우리당의 정책은 인민대중의 근본적 리해의 표현」은 약산의 글이 아니라, 당시 강원도당 위원장 김원봉의 논설이다.

# 북한 사료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

#### 북한 사료는 무엇을 이야기 해줄 수 있는가?

역사는 과거 경험의 결집체이다. 즉,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과 지혜의 창고'인 것이다.

우리가 역사 사고력(Historical Thinking)을 키우려면, 사건의 발생시점과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인관관계를 설명해야 하며, 반드시 전문가에 의해 가치 평정 받은 자료 즉, '사 료'가 필요하다.

#### 이 사료집은 20년 이상의 준비과정과 여러 사람의 협력작업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사료집은 '사실로서의 역사', '기록으로 서의 역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은 정확한 역사인식을 위한 '창고' 짓기와 북한 관련 지식, 정보를 아는 것,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창고를 채워나가는 것일 뿐이다. 기록물의 가치 평정에서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자료 선별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하였다. 사료에는 반드시 전거를 달았으며, 필요한 경우 각주도 붙였다.

그러나 더 중요한 역사의식의 문제 즉, 현재의 북한문제를 역사적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모름지기 사 료 이용자의 몫이다.

# 북한 문헌 비판과 활용: '역사인식'에서 '역사의식'으로

####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연표로 제시된 사료를 스스로 해석하고, 문제의 발단·전개·결과를 재구성해야 한다. 사료의 작성 의도, 작성자의 개인적 특성, 가치관,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 복잡한 외부조건 등에 대한 전체적 이해와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료가 다룬 기본 질문을 이해하고, 집필자의 목적, 시각, 가치관을 파악하며, 사실과 해석, 주장을 변별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진 등의 이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북조선의 의사 결정 및 전파과정도 이해해야 한다.

####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

- 북한 체제·지도자·사상에 대한 생각, 주민의 가치관, 행동, 제도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 시대와 지역적 특성을 유연하게 분석, 해석할 수 있다.
- 대조적 서술과 주장들에 대한 자료적 검토가 가능하다.
- '절대', '무조건' 또는 '불가피성'을 주장한 견해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학자들 사이의 쟁점을 자료를 통해 평가할 수 있다.
- 연대기적 문헌을 이용할 때, 역사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 이용자들이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 수 있고, 현재 이슈에 대한 해결책도 모색해 볼수 있다.



## 『북조선실록』 출판 목록

- 1 001~010 1945.08~1947.04. 2018년 10월 간행
- 2 011~020 1947.04~1948.06. 2018년 10월 간행
- (3) 021~030 1948.06~1949.06. 2018년 10월 간행
- 4 031~040 1949.07~1950.04. 2019년 10월 간행
- (5) **041~043, 098~104** 1950.04.~1950.06. / 1953.07~1953.10. 2019년 10월 간행
- 6 105~114 1953.10~1954.04. 2019년 10월 간행

## 『북조선실록』2020년 이후 출판 예정 목록

- 7 044~053 1950.07~1951.01. 2020년 05월 간행예정
- 8 115~124 1954.04~1954.10. 2020년 05월 간행예정
- 9 054~063 1951.01~1951.08. 2020년 10월 간행예정
- (10) 125~134 1954.11~1955.04. 2020년 10월 간행예정

#### ※ 『북조선실록』 100권 출판 기념 학술회의 개최(2020.11.)

- (11) **064~073** 1951.08~1952.02. 2021년 05월 간행예정
- (12) 135~144 1955.05~1955.10. 2021년 05월 간행예정
- (13) **074~083** 1952.03~1952.09. 2021년 10월 간행예정
- (14) 145~154 1955.11~1956.04. 2021년 10월 간행예정
- (15) **084~093** 1952.09~1953.04. 2022년 05월 간행예정
- (16) 155~163 1956.05~1956.10. 2022년 05월 간행예정
- (17) **094~097** 1953.04~1953.06. 2022년 10월 간행예정
- (18) 155~170 1956.11~1957.08. 2022년 10월 간행예정

#### 수록 사료

자료군(群) 분류	명칭	초판시기	비고
주요 기관지	로동신문 (당)	1945~현재	
	조선인민군 (군)	1947~현재	
	청년, 민주청년, 청년전위 (청년동맹)	1947~현재	
	평양민보, 민주조선 (내각, 기타)	1946~현재	
	평양신문 (평양특별시)	1957~현재	
당 정책 기관잡지	근로자	1946~현재	
분야별 기관지 (발행중, 100여 종)	1백여 종 내외 (내각공보, 인민, 청년생활, 조선여성 …)	1945~현재	
정권수립기 분야별 기관지 (폐간, 100여 종)	1백여 종 내외 (旬刊通信, 로동자신문, 농민신문 …)	1945~1960	
해외 관련 자료	人民日報, 쁘라우다, 朝鮮新報 등 정기간행물	1945~현재	
외국 생산 또는 소장 관련 자료	수집사료, 외교문서, 일지 등 (FO371 ···)	1945~현재	○ 외국어 사료의 경우 번역
기타 수집 자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집」 …	1945~현재	○ 중국·미국·러시아 등 국외 기관과 협력

#### 김광운 국사편찬위 연구관, "북한도 실수한 김일성 역설 날짜, 사료에는 나와 있죠" -경향신문2018,10,17

역사학자치고 사료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김광운 국사편찬 위원회(국편) 편사연구관(59)의 북한 사료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는 표현을 뛰어넘는다. 그는 최근 1945년 8월15일부터 매일 북한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수록한 편년체 사료집 〈북조선 실록〉 1차분 30권을 펴냈다.

지난 20여년간 거액의 사재를 들여가며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민주청년, 청년전위, 민주조선 등 북한의 주요 기관지를 비롯해 북한이 발간한 각종 자료를 창간호부터 닥치는 대로 모은 결과물이다. 1949년 6월30일까지다룬 1차분 30권은 글자수가 2744만3976자, 200자 원고지로 13만7228장이다

〈북조선실록〉 1차분 발간 기념 워크숍이 열린 17일 경남대 극동문제연 구소에서 김 연구관을 만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냐는 질문에 김 연 구관은 스스로 "미쳤다"며 "북한 자료가 있는 곳은 안 가본 곳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한양대에서 '일제식민지시대 노동계급 형성'을 주제로 석 사학위를 받고 1992년 국편에 들어갔다. 그는 애초부터 북한에 큰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국편 자료실에서 방선주씨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발굴해 보내온 이른바 '노획문서'(미군이 한국전쟁 당시노확한 북측 문세를 보면서 차츰 빠져들었다. 방씨는 1979년부터 NARA에서 한국사 관련 자료를 다수 발굴해왔으며, 국편 해외자료 수집 위원도 맡았다.

김 연구관은 "이후 '북한 정권 초기 당과 정부, 군의 간부 양성'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썼는데 자료를 1947년 4월 것까지밖에 못 구했다"며 "북한 연구에서 자료가 매우 중요함을 깨달은 계기였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지금도 북한 관련 박사논문을 쓰는 대학원생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료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고 덧붙였다.

# 북한 건국 자료 집대성 '북조선실록' 30권 발간 - 동아일보 2018,10,22

북한의 건국 과정이 담긴 내부 자료를 일기처럼 집대성한 '북조선실록 이 발간됐다.

북한대학원대는 경남대와 함께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6월 30일까지의 북한 사료를 연도별, 날짜별로 정리한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1~ 30권을 최근 출판했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물인 이 자료집은 총 2744만 자(200차원고지약 13만7228장)의 방대한 분량으로 북한 연구에 필수적인 사료를 담고 있다. 북한 기관들이 발간한 기관지인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 '민주청년' '민주조선' '평양신문'을 비롯해 지금까지 알려진 거의 모든 공식사료가 시간 순으로 재편집돼 담겼다.

신종대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광복 이후 북한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이슈가 망라됐다"며 "연구자들에게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획과 사료 선별 등을 총괄한 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자료가 부족했는데 광복부터 6·25전쟁 전까지 자료는 더욱 그러했다"며 이번 사료집 간행의 의미를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해마다 60권씩 추가로 발행해 1990년대 중반까지의 사료를 모두 1000권으로 낼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북맹타파] "20년간 전 세계서 北자료 닥치는 대로 모았어요" - 연합뉴스 2018/10/25

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이 혼자 힘으로 북조선실록 1천 권 출간 사업에 도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의 유튜브 채널 '정일용의 북맹타파'는 지난 17일 '북조선실록' 1차분 30권을 출간한 김광운 편사연구관을 과천 연구실에서 만났습니다.

해방 이후 북에서 발간한 사료를 집대성하는 장기 사업인데요. 1차분 30권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6월 30일까지 매일매일을 편년체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 13만7천228매 분량으로, 글자 수로는 2천744만 자에 달한다고 합니다.

# 1차분 30권 펴낸 김광운 국사편찬위 연구관 "북조선 실록, 하루 14시간씩 20년 연구 결실" -주간경향1300호

역사가는 사료를 바탕으로 말한다. 그 점에서 역사를 포함한 북한 연구는 '실증'이 어려운 대표적 분야였다. 오랜 냉전 기간 동안의 대립으로 북한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문건과 자료에 접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국내에 들어온 자료들도 체계적으로 모이질 않았다. 김광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50)은 북한에 대한 이념적 선전과 평가는 난무하지만 정작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는 부족한 국내의 연구현실에 갈증을 느꼈다. 그래서 직접 발벗고 나선 지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모은 막대한 사료들을 묶어연대 순으로 〈북조선 실록〉 1차분 30권을 펴냈다. 1990년대까지 다루는 사료집을 계속 펴낼 경우 1000권을 넘게 될 수도 있는 전체 기획의 첫 작업물이다.

#### 통일 이후에도 이 작업은 계속 가치를 인정받을 것 같다.

"북한이 기록에 충실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체제 유지를 위해 '영 광과 승리의 역사'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기록을 해 왔다. 그런데 사람 사 는 모습은 좌절과 고뇌, 어려움이 있고 지저분한 면도 있는 게 실제 역사 아닌가. 연구자들에게는 정권 차원의 관점이 반영된 자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객관적인 시각이 반영된 자료가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평화국면이 진행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북한 주민들에게 도 열려 있지 않은 내부 기록과 자료들이 하루아침에 외국 연구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현재의 작 업을 계속해 완수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 〈북조선 실록〉은

〈북조선 실록〉은 북한 연구에 필수적인 각종 사료를 연도별로 정리한 사료집이다.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간한 문서와 기록물들을 중심으로 사료를 집대성한 이 장기 프로젝트에서 1차분으로 간행된 30권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다뤘다. 200자 원고지 13만 7228장, 글자 수는 2744만자에 달하는 막대한 분량이다.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이만열 상지대 이사장은 "북한 1차 자료집은 몇 몇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간행한 것이 있지만 〈북조선 실록〉은 체계적으로 간행한 최초의 북한 사료집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어려웠던 해방 직후 북한의 진실을 드러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흑룡강성 사회과학원과의 중간협력을 통해 북한 당 역사연구소와도 통할 수 있었는데 김 연구관의 노력이 더해져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 극찬을 아끼지 않는 학계의 평가

####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현 상지대 이사장)

- ─ 『북조선실록』의 간행으로 북한 연구를 한 단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 사료 선별에서 일관성을 유지했고, 이용자를 위해 전거를 밝히고 각주를 달았기에 신뢰감을준다.
- 북한 관련 거짓 지식과 정보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정용욱(서울대 국사학과 교수)

- ─『북조선실록』간행은 한국사 연구분야에서 커다란 성취이며, 연구자들에게 최고의 회소식이다.
- ─ 북한 텍스트 정본화는 대립·갈등·분열의 작업에서 화해·협력의 원점이 될 작업이다.

#### 최현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부장)

- ─ 『북조선실록』 간행은 위대한 작업이다.
- 철도 도로만 인프라가 아니라, 이런 작업도 보이지 않는 인프라다. 국가의 지원을 기대한다.

####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북조선실록』 간행은 북한 연구의 Before/After가 될 것이다.

#### **썬즈화**(중국 화동사범대학 종신교수)

─ 『북조선실록』은 거의 복음과 같은 자료집이다.

####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 북한에서도 사료가 부족한 만큼 향후 이 작업이 남북 공동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기획, 사료 선별 · 각주, 집행 총괄	편집	제작·총판
김광운	김명선	윤관백(선인)
	오성현	홍종화(민속원)
『북조선 실록』 간행 학술 자문위원	박민주	
이만열(상지대학교 이사장, 전 국사편찬위원장)	김소리	
金字鐘(전 흑룡강성 당사연구소 소장)	강현경	
박순성(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최현규(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회장) 제작\_ **도서출판 민속원** 朴燦奎(연변대학교 조선반도연구원 원장) 전화 02-806-3320 | 및

정용 욱(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정병준(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영달(양원기업 대표)

신종대(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주소 서울 마포구 토정로 25길 41 | 이메일 minsok1@chollian.net

정창현(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총판 **도서출판 선인** 

박정진(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화 02-718-6252 | 팩스 02-718-6253 채희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다길 4 | 이메일 sunin72@chol.com